광양시, 야자수 잎새 사이로 햇살 비치는 '해비치로 달빛해변' 개장

광양만 품은 이국적 휴양 스트리트… 낮과 밤이 반짝이는 복합문화공간

광양시는 광양만을 따라 조성한 감성 수변 공간 '해비치로 달빛해변'을 2월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도심 속에서 바다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휴양 스트리트로, 걷기와 휴식,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15,000㎡ 규모의 부지에 151면의 주차장과 4개 버스킹 공연장, 푸드트럭 존 등을 갖춘 도심형 해변으로 조성됐다.

해변에는 28그루의 야자수가 식재돼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캐노피와 파고라 등 휴식 시설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갯벌과 수면이 드러나는 광양만 특유의 자연 경관과 아파트 단지, 무지개다리, 이순신대교가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경관을 형성한다.

아울러 무지개다리와 해오름육교, 이순신대교는 해비치로의 상징적 경관 요소다. 무지개다리는 삼화섬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로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오름육교는 낮에는 도심과 수변을 잇는 생활형 보행교로 기능하며 야간에는 황금빛과 보랏빛 경관조명이 더해져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이순신대교는 광양만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주탑으로 일대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무지개다리와 해오름육교 사이에 위치한 삼화섬은 낮에는 시민 쉼터로 활용되고,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연출 공간으로 운영돼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체류형 명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무지개다리에서 삼화섬을 거쳐 해오름육교까지 이어지는 도보 순환 동선은 해비치로 달빛해변의 주요 관람 동선으로, 보행 방향과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는 수변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낮에는 바다와 자연이 주는 여유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이라며 "백운산권과 섬진강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군, '제1회 청해 문학상' 3월 31일까지 공모

일반부 대상 시상금 2천만 원 등 시상 규모 커

'치유의 섬' 완도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의 향기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1회 완도 청해 문학상' 공모전을 연다.

문학상 공모전은 완도가 지닌 '치유'를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해 완도의 가치를 알리고 완도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모전이 첫 회임에도 총 상금이 4,100만 원에 달하는 등 전국 규모의 수준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공모는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부(20세 이상 국민) 참가 요건은 2년 이내에 출간(미 수상)한 시 또는 소설 1권, 청소년부(19세 이상 전남도민)는 시 5편 또는 수필 2편 창작물, 청해 작가상(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작가)은 2년 이내에 출간(미 수상)한 시 또는 수필, 소설 1권이다.

일반부 대상은 2천만 원, 우수상은 1천만 원, 청소년부는 부문별 50만 원, 청해 작가상은 부문별 5백만 원이 수여된다.

작품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일반부와 청해 작가상은 우편 및 방문 접수, 청소년부는 이메일(shgywjd@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 1일(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은 "참신한 시각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2026년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100호분 공급

㈜부영주택과 업무협약 체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부영주택과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신규 100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부영주택은 202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주택 300호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1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영주택은 만원 임대주택의 내부 보수와 현장 민원 처리 등에 적극 협조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3년간 관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했고, 입주 이후 자녀 21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 23호를 공급 중이다. 이어 2차분 지원사업은 ▲3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5월 2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7월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1차분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나 최종 당첨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차분 지원사업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라는 이중근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에 힘써 왔으며, 지방 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지급

10만 원 인상, 보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보성군은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연 70만 원으로,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입원이나 장기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공익수당은 현금이 아닌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난해에는 9,774명에게 총 58억 원 규모가 지급돼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 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산불 예방·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별 공조체계 점검

담양군은 지난 24일 봄철 산불 발생 대비·대응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 공유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담양소방서, 담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산림조합 등 산불 관계기관과 각 읍면장도 참석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 역할과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산불 취약지역 집중 관리 △산불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사항 △주민대피 모의훈련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 운영 현황 점검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하면 '프로바둑기사와 승부'

답례품 특별이벤트… '마한의 심장 영암' 팀 기사와 대국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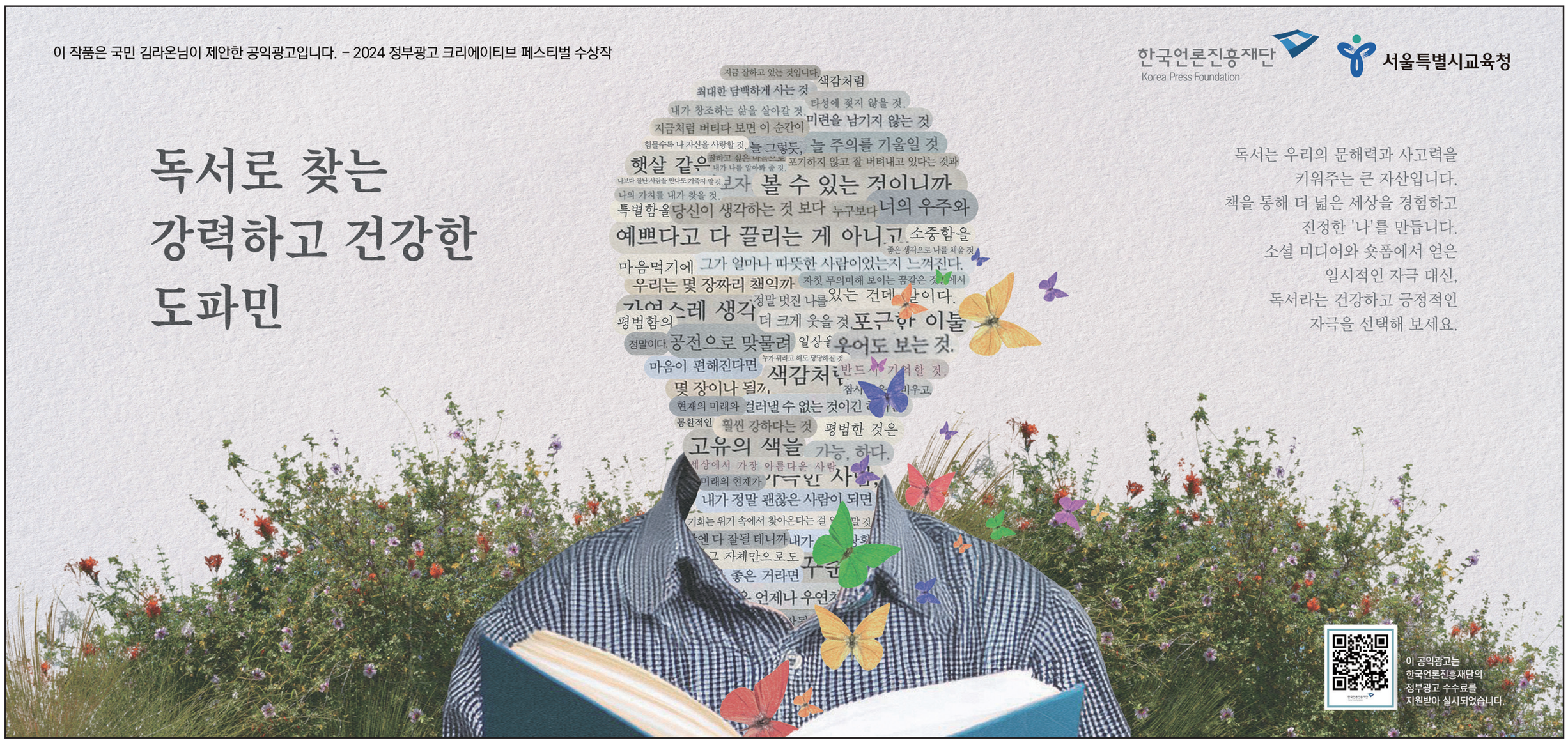
전남 영암군이 벚꽃이 흩날리는 정자에서 프로바둑기사와 한 판 대국을 나누는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올해 2~3월 영암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하는 기부자 중 답례품 특별이벤트 '프로바둑기사와 승부'를 선택한 선착순 20명에게 '마한의 심장 영암' 바둑팀 프로기사들과 대국을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영암군 소속의 이 바둑팀은 세계 1위 신진서 9단을 포함해 홍성지 9단, 심재익 7단, 이재성 6단, 최광호 7단, 쉬하오훙 9단이 한해원 감독과 국내 바둑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별이벤트는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인 4/4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왕인문화유적지 성담 정자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기부자는 바둑기사와 식사 데이트를 하고, 4:1 다면기로 대국을 체험하게 된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영암군을 선택해 기부한 다음, 답례품 항목에서 '프로바둑기사와 승부'를 선택하면 되고, 최종 선정된 20명 기부자에게는 영암군에서 따로 연락을 준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